

1930년대 김남천 도시소설 연구

이 강 연

〈目 次〉

- | | |
|-----------------|---------------|
| I. 머리말 | 1. 지식인 주인공 소설 |
| II. 도시소설의 형성 배경 | 2. 소년 주인공 소설 |
| III. 생애와 작가편력 | V. 맺는말 |
| IV. 도시소설의 두 양상 | |

I. 머리말

1988년 해금조치가 단행된 뒤 남·월북 문인에 대한 연구 열기가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문학사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잘 알다시피 남·월북 작가란 1920~1930년대 카프계열에 참여하여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했거나, 또는 이념과는 관계 없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창작활동을 해오다가 고향이 북쪽이어서 그대로 잔류하게 된 작가들¹⁾ 일컫는다. 그러나 이들을 유형별로 본다면 ①처형수난문인 ②월북문인 ③입북문인 ④남북문인 ⑤재북문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월북문인의 경우 도피월북문인과 지향월북문인으로 양분해 볼 수 있으며, 입북문인의 경우에도 자의입북문인과 타의입북문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

김남천(1911~1953)은 위의 분류에서 볼 때 도피월북문인의 유형에 속한다. 왜

※ 이 논문은 1992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임.

1) '7·19 해금작가작품세계', 동아일보, 1988. 7. 22. 이때 재조명될 것으로 보이는 작가로서 이태준, 박태원, 안희남, 최명익, 김남천, 허준, 박노갑, 이근영, 임흥섭 등을 열거했다.
2) 정영진, 통한의 실종문인, 문이당, 1989. p. 18.

나하면 자의로 6·25 전에 북으로 간 문인을 총칭하여 월북문인이라 부른다면, 그 중 남에서의 혁명활동에 세불리를 깨닫는 한편, 미군정의 핍박을 일시 피한다고 생각하고 월북한 문인이었기³⁾ 때문이다.

그는 해방이 되자 임화와 함께 ‘조선문학건설본부’를 설립하고, 이에 맞서 이기영·한설야 중심의 이른바 비해소파들이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을 결성하자 좌익문학은 양립하는 사태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자 그 이듬해(1946) 이 두 조직은 ‘조선문학가동맹’으로 통합되면서 김남천은 부위원장을 역임하다가 정판사 사건, 10월 인민항쟁 등에서 보는 바처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지자 1947년 경 월북한 것으로⁴⁾ 알려지고 있다.

1948년 정부수립까지 우리의 문학은 이데올로기의 극한대립과 정치우위론의 양상, 그리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의 친일의 흔적을 극복하지 못한 채 분단현실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경향으로⁵⁾ 치닫게 되었던 것이다.

본고는 전형적인 월북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 김남천문학을 도시소설의 시각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김남천문학에 대한 논의는 현실인식의 문제나 리얼리즘의 성취 여부, 그리고 그의 문학론의 전개양상에서 중점적으로 거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국한한다면 김남천문학을 단순한 논리로 이끌어 갈 공산이 크다.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몇몇 논리의 시각을 벗어나 그의 문학의 실상을 새롭게 주목해 볼 때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

잘 알다시피 1920년대와는 달리 1930년대에 이르면 도시로 인한 도시적 삶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박태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 무렵 작가들이 다양한 도시적 삶을 토대로 한 도시문제(urban problems)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다양한 형식적 기법이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1930년대에 주로 활약한 작가 김남천 역시 이 경우 예외가 아니다. 이 시기에 그가 발표한 작품에도 도시를 중심무대로 한 작품이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갖가지 형태로 말미암아 비극적 삶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그의 작품에는 ‘가족’이란 단위가 도시화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훼손되고 파편화되어 가는 모습이 중점적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도시소설

3) 위의 책, pp. 21~22.

4) 이덕화, 김남천연구, 청하, 1991. p. 25.

5) 이우용, 해방직후한국소설의 양상, 고려원, 1993. p. 305.

의 형성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김남천의 생애와 작가편력, 그리고 그의 도시소설의 실상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도시소설의 형성 배경

두 차례에 걸친 카프맹원에 대한 검거사건은 급기야 우리 소설문학에서 그때까지 상당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계급문학이 퇴조하기에 이르렀고, 그 뒤를 이어 대두하기 시작한 문학적 현상은 관심의 다원화, 또는 관심의 원근법⁶⁾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일제의 탄압에 의해 카프가 더 이상의 존재근거를 지닐 수 없게 되자,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우리 소설은 이데올로기가 제거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던 것이다.⁷⁾ 이 시기의 소설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갔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폭을 훨씬 깊고 넓게 함으로써 수직적·수평적 양극화 현상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가령 관심의 지지적인 수평은 도시와 자연 또는 문명과 흙 및 농촌으로 확산되는 현상과 다른 한편 관심의 방향을 상승하강적으로 수직화 함으로써 역사소설이나 가족사소설의 양식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⁸⁾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직적 시간대를 과거와 현재쪽으로 나누어 놓고 볼 때, 역사 또는 야담류소설은 과거쪽 시간대에 현저히 기울어져 있는 반면, 가족사·연대기 소설은 비교적 현재쪽 시간대에 가로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무렵 이광수·김동인·박종화·현진건·윤백남 등의 역사소설은 전자에, 염상섭의 〈三代〉, 채만식의 〈태평천하〉, 김남천의 〈大河〉 등의 가족사소설은 후자에 드는 예가 된다.

다른 한편 수평적 공간대로 볼 때, 농촌과 도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소설

6)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p. 313.

7) 1930년대에서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문단적 상황과 소설적 경향을 전광용은 다음과 같이 5가지 특징으로 요약했다. ① 이 시기에 이르러 새로운 세대의 문인이 대거 등장하여 문인의 계층이 다양해졌다. ② 30년대 문학은 그 문학인구의 증가와 경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소설의 주조가 드러나지 않았다. ③ 30년대 소설문단은 소설 장르의 확대라는 특징적인 현상을 낳았다. ④ 30년대 소설이 보여주는 소재의 다양성은 이 시기 문학세계의 폭을 말해주는 주요한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특징으로 30년대 소설문단의 경향은 그 가능성을 드러낸 소설적 기법의 세련을 가져왔다. 전광용편, 한국근대소설의 이해 II, 민음사, 1983, pp. 485~487 참조.

8) 이재선, 앞의 책, pp. 313~314 참조.

이 자리잡게 되었는데, 그 하나는 농촌·농민소설, 전원소설, 토속소설 등과, 다른 하나는 도시를 공간배경으로 한 심리(심경)소설과 도시(시정)소설 등이 그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대와 농촌과 도시로 양분된 공간대는 결국 4개의 축으로 분산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1930년대 소설의 양상이다. 그리고 이 4개의 축에서 과거의 시간대와 농촌의 공간대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소설은 다분히 전통지향(tradition orientation)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비해, 현재의 시간대와 도시 공간 축을 통해 전개되는 것은 외래지향(modernity orientation)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930년대 소설은 리얼리즘을 규범으로 삼는 전통미학의 소설과 모더니즘을 지향하는 새로운 미학의 소설이 함께 병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1930년대 소설의 공간의식은 인위적인 환경으로서의 도시와 자연환경으로서의 자연 또는 향토라는 두 개의 상이한 공간형태를 배경으로 한 서로 다른 소설양식이 단층화 내지 대립현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현대문명과 사회의 상징인 도시에로의 들어감과 반도시문명적인 휴과 자연에로의 나오미란 두 개의 양상이다. 이런 향방의 차이에서 문학에 있어서의 모더니즘과 반모더니즘의 경향이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모더니즘 예술은 현대도시와 특별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도시와 자연의 변증법, 이것은 30년대 한국문학의 가장 현저한 주도적 특질의 하나이다.⁹⁾

우리의 소설에서 도시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이때의 도시는 삶의 단순한 공간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는데, 1930년대에 이르면 삶의 공간개념 뿐만 아니라, 도시적 감각, 이를테면 속력성·직선성·매력성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향락적·소비적·퇴폐적이라는 부정적 의미에서 이중성을 나타내었던 것이다.¹⁰⁾ 이것은 193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도시는 전통과 반체반봉건이란 새로운 가치관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이 대두되었고, 나아가서는 근대 도시생활의 제약상들이 나타났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른바 도시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도시생활의 사회적 장애 또는 사회적 곤란을 야기하는 도시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는 도시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차적인

9) 이재선, 같은 책, p. 316.

10) 전해자, 현대소설사연구, 새문사, 1987. p. 8.

인간관계의 악화와 이차적 인간관계의 만연, 사회관계로부터의 소외, 전통적 이웃관계의 악화, 경쟁에 따른 좌절감, 전통적 도덕률의 악화, 여성역할의 변화, 세대간의 의견대립, 개인주의의 보편화, 가족관계 및 성관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¹¹⁾

도시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구의 집중에서 야기되는 실업·빈곤·전염·질병 등을 비롯하여 주택난·교통난·급수난 및 청소문제와 같은 애로와 각종 공해·재해·사고 등의 발생, 그리고 공공시설의 부족에 의한 생활 환경의 악화, 나아가서 도시 특유의 범죄·마약중독·정신병과 같은 병리현상¹²⁾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도시소설이란 무엇인가. 현대소설은 도시를 소재나 배경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상례화되고 있지만, 도시와 도시적 삶의 양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에서는 무엇보다 도시경험(urban experience)을 재현하는 가운데 도시특유의 생활양식에서 인간현실의 축도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영미권에서는 도시경험이 현대사회에서의 개체적, 사회적 삶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믿음에 전제로 도시의 현상과 풍속을 탐구하는 소설을 도시소설의 범위에 넣고 있다.¹³⁾ 따라서 도시소설은 일차적으로 도시의 밀집된 공간을 배경으로 삼되 그 도시로 말미암아 유형무형으로 도시인의 의식이 반영된 것을 말한다. 이때 도시인의 의식이란 20세기에 걸쳐 나타난 위기의 의식, 곧 불안과 소외로 집약되는 인간 의식의 비극적 주제를 잘 드러내 보인 소설¹⁴⁾을 말한다. 미국의 젤판트(B. H. Gelfant)는 사회학자들이 보통 도시성(urbanity)이라고 부르는 도시생활의 전형적 특징들—예컨대 인간의 고립과 소외, 공동체의 붕괴, 전통적 규범의 소멸, 아이덴티티의 위기 등—을 반영하는 소설을 지칭하면서, 도시생활의 전형적인 특징인 도시성을 반영하는 문학, 즉 도시의 복잡다기한 생활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언어를 사용해서 도시생활을 재현하는 형식¹⁵⁾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선의 다음과 같은

11) 강대기, 현대도시론, 민음사, 1987. p. 157.

12) '도시문제', 동아세계대백과사전, 제9권, 동아출판사, 1982. p. 334.

13) 한용환, 소설학사전, 고려원, 1992. p. 111 참조.

14) 이강언, 이효석의 도시소설연구, 국어국문학연구, 제20집,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1992. p. 75.

15) Blanche Houston Gelfant, The American City Novel,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70. p. 11.

말은 도시소설의 개념을 함축적으로 제시해 주는 예가 된다.

도시소설이란 문자 그대로 촌락과는 다른 도시가 안고 있는 삶의 질적인 특질이라 할 수 있는 ‘도시성(urbanism)’ 즉 도시의 복잡다기한 삶의 사회적 의미와 도시에서의 특유한 삶의 양식이 관찰되고 재현되는 소설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도시소설은 도시어로 이주 왕래하는 삶의 수평적인 유통화현상에서 비롯하여 인구과잉과 밀도과잉이 수반되는 도시사회에 내재하는 구조적 특성과 특수지역의 상태는 물론 도시인의 퍼스널리티 및 세태를 총괄적으로 두루 재현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소설인 것이다.¹⁶⁾

그리고 다른 한편 겔판트는 도시소설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제시했는데, 이것은 도시소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첫째 주인공에 의해 발견되고 체험되는 도시를 묘사하는 초상(portrait) 형과 둘째 주인공 없이 도시 자체를 하나의 개성으로 묘사하는 총람(synoptic) 형과 셋째 어떤 특정한 도시구역에 초점을 맞추고 그 구역 특유의 생활양식을 묘사하는 생태학(ecological) 형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의 예를 초상형으로 드라이저의 〈시스터 캐리〉를, 총람형으로 도스패소스의 〈맨허턴 트랜스퍼〉를, 그리고 생태학형으로 제임스 파이렐의 〈분노의 나날들〉을 들고 분석하였다.¹⁷⁾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예와 흡사한 작품이 193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눈에 띄이기 시작했다. 요컨대 이 시기에 이르면 전통적인 농경구조가 무너지고¹⁸⁾ 도시산업화가 형성되면서 도시민의 생활이 현격히 달라졌다.

일제하 한국도시의 발달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놀랄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도시근대화에 따르는 문물제도의 획기적인 개편, 사회시설의 정비, 생활편의의 향상 등 새로운 사실은 일반도시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실업자와 세구민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 시민건강의 퇴폐, 범죄율의 격증이라는 사회문제를 발생시켰고, 도시계획령에 의한 구중소상인의 몰락, 시민부담

16) 이재선, 1930년대 도시소설, 문학사상, 1988, 8월호 별책, p. 387.

17) B·H·Gelfant, 앞의 책, pp. 11~15 참조.

18) 유봉철, 일제하의 국민생활 수준, 조기준외, 일제하의 민족생활사, 민중서관, 1971, pp. 432~433 참조.

19) 유봉철, 위의 글, 위의 책, p. 439.

의 증가, 도시민의 토지상실 등 경제문제도 발생하였다.¹⁹⁾

요컨대 도시근대화에 따른 일반도시민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업자 등 도시의 부정적 측면이 급격히 노출되기 시작한 점이다. 가령 이러한 예는 1930년대 소설에서 도시를 공간배경으로 삼고, 도시의 보편적 삶의 양식으로서 가난, 범죄, 쾌락과 매춘, 인간관계의 생태적 마찰과 심리적 긴장, 소외감 및 개인적인 분열증상은 물론 자유의 공간이 막혀버린 식민지 사회의 축도로서 도시의 분위기가 제시되고 있는 것을²⁰⁾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잘 알다시피 이러한 성격의 작품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진 작가로서 박태원을 비롯한 ‘九人會’ 멤버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은 모더니즘의 중심적 단계로서 무엇보다 도시적 감각을 즐겨 드러냄으로써 리얼리즘계 소설과 구분되는 면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도시소설의 개념을 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살아가는 인간을 그 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묘사한 사회소설의 일종으로 볼 때, 그 속에는 염상섭·채만식·유진오 등과 김남천·이복명 등의 30년대 소설도 포함될 것이다. 20년대 이래의 도시화의 추세에 따라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도시소설의 중대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 카프계 작가들만 하여도 농촌(농민) 소설에서 도시소설의 영역을 확대해 갔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집단의 세계관이나 모랄을 강조하는 이들의 리얼리즘 소설과 언어감각과 실험을 중시하는 모더니즘소설은 일단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모더니즘계 도시소설은 도시의 옛스런 모습과 새로운 면에 두루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도시의 충만한 감각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고자 하거나(이효석의 경우), 도시인의 심리묘사에 큰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박태원·이상의 경우) 리얼리즘계 소설과 구분될 뿐 아니라 양진영의 논쟁에서 드러나듯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²¹⁾

카프해산계를 재출한 뒤에 발표된 일련의 김남천소설은 도시소설의 범주에 놓고 볼 때 모더니티한 성격보다 사회소설의 성격이 우세한 것은 물론이다. 그의 작품에서 ‘도시성’ 또는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예를 말해주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련이란 의미로서 다양한 기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

20)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p. 321.

21) 서준섭, 한국 모더니즘 문학 연구, 일지사, 1988. p. 33.

을 뿐 아니라, 작품 전반에 지배되고 있는 고절감은 모더니티한 면모를 말해주는 것이 된다.

Ⅲ. 생애와 작가편력

김남천은 1911년 3월 16일 평안남도 성천군 성천면 하부리에서 김영전(김해 김씨)의 2남 4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효식은 그의 본명이고 남천은 필명이다.

22)

그의 부친은 이 고을에 적지않은 농토를 지니고 있는 중농으로서 군청속관(공무원)으로도 근무하고 있었다. 김남천은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상한 부모와 누나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이곳 보통학교를 다녔다. 보통학교를 마치게 된 그는 1925년 15세의 나이로 평양으로 가 명문학교인 평양고보에 진학한다. 이때부터 그의 도시 체험은 평양에서 경성, 경성에서 동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그의 작품에 어떤 형태로든 도시가 비중있게 차지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김남천은 평양고보에서 수학하면서 자신의 생애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획기적인 사건을 체험한다. 하나는 처음으로 문학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첫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평양고보에 입학하고 난 뒤 같은 반에 재학하고 있는 동향 출신 한재덕의 권유로 ‘月域’ 동인으로 가담하면서 문학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는 문학을 통해 반일적인 사회주의 또는 계급주의적인 사회의식을 키워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고보 졸업반 때인 1928년 여름방학을 맞이한 그가 성천군수의 딸 김진해와 만난 인연으로 뜨거운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던 것이다.

1929년 김남천은 평양고보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호오세이(법정) 대학 문과에 입학하여 유학생생활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이때 각종 좌익단체에 가담하

22) 김남천의 생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진 자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그가 쓴 <작가안내>(사해공론, 1938. 7), <작가 생활의 회고>(박문, 1939. 10)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정리했을 뿐이다. 여기서는 김남천에 대하여 언급되거나 논의 된 글 ①「맥」(울유문화사) ②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론」(한샘), ③정호웅 <김남천론>(문학과지성사) ④서경식 <김남천론>(문학사상) ⑤신상성, 「김남천연구」(경운출판사) ⑥최원식 해제, 「건설기 조선문학」(온누리) ⑦이명재 「등불」(지학사) 등을 참조하여 그의 생애를 정리한 것이다.

면서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을 집중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이듬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고향에 돌아온 그는 성천지방 청년동맹을 조직하고, 평양 고무직공 파업에도 관여하여 격문을 작성하는 등 열성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1931년 호오세이 대학에서 제적을 당한 후 카프 제2차 방향전환기를 맞아 임화·안락·권환 등과 프로문학 극좌파 이론가로 활약하다가 '공산주의협의회' 사건에 연루되어 카프 맹원 박영희·김기진·임화 등 70여 명이 피검되는 이른바 제1차 카프맹원검거사건에서 김남천은 유일하게 기소되어 2년간의 옥살이를 하게 된다. 옥살이를 마치고 1933년 출감과 함께 조선중앙일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창작 생활을 겸하게 되었는데, 먼저 그는 자신의 옥살이 체험을 소재로 한 단편 〈물〉을 발표하자 이 소설을 둘러싸고 임화와 '물논쟁'²³⁾이 제기되기까지 한다.

1930년대 중반기로 접어들자 국내와 정세는 날로 열악해지기 시작하고 급기야 1934년 제2차 카프맹원검거사건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자 김남천은 이듬해(1935) 5월 21일자로 경기도 경찰국에 카프 해산계를 제출한다.

평양에서 만난 김진해와의 운명적인 사랑과 그녀와의 결혼문제로 인한 부모와의 불화와 반발, 그리고 그에 연이어진 수년간은 작가 김남천의 생애에서 커다란 상처요 벅찬 수난이었다. 일본에 건너가서 프로문학이나 사회주의 운동에 온몸으로 뛰어들어 열매게 활동하다가 수차례의 검거와 옥살이를 겪었고 더구나 김진해의 죽음으로 쓰러진 고독도 맛보았다. 말하자면 이 기간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큰 시련기였으며 다시 없는 방황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관의 나이에 이르기도 전에 운명의 열병에 시달리던 그가 나름대로 그 운명과 세치게 싸웠지만 별무성과였던 평양고보 졸업무렵부터 독신으로 지내던 30년대 중엽까지의 십년 세월이 해당된다.²⁴⁾

평양고보 시절 처음으로 문학과 사랑의 체험을 맞본 뒤 숨가쁘게 돌아간 10년은

23) 김남천의 단편 〈물〉(대중, 1933. 6)이 발표되자 임화는 옥내의 정치범들의 정치적 행동 대신 생생한 물에 대한 '산인간의 열화와 같은 욕망만이 약동하고 있어, 계급성과 당파적 견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자, 이에 맞서 김남천은 〈물〉에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물을 조절치 않으면 안될 상황에서 물을 조절하여 쓸 책임을 맡은 '물담당'의 설정과 외교를 맡은 인물의 역할은 사상범의 생활의 계급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논쟁에 박승국이 뛰어들면서 문단으로 확산되어간 논쟁을 말한다. 김재남, 김남천문학론, 태학사, 1992, pp. 73~75 참조.

24) 이명재, 슬픈 시대의 작가적 삶, 이명재 편저, 김남천 「등불」, 지학사, 1990, p. 336.

참으로 가슴 아픈 세월이었다. 그러나 그는 심기일전, 재기의 몸부림으로 전처 김진해와 서울에서 경성악전 동기동창이었던 박복실과 재혼을 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제 조국을 떠나 왕성한 의욕으로 소설과 문학론을 병행해서 발표했는데, 특히 그의 작품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학사에서 여러가지로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자들은 리얼리즘의 연장 선상에서 리얼리즘의 성패여부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데, 물론 김남천은 리얼리즘에 대한 집요한 모색으로 소시민적 세계관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보여주었지만 현실인식의 부족, 세계관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올바른 리얼리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평이다. 그러면서 김남천이 객관적 현실의 한계와 소시민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극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 것은 소극적 현실대응이나마 이루고자 한 것임에는²⁵⁾ 틀림없었다.

식민지시대의 말기인 1940년대에 들어서면 다 알다시피 일제는 언어말살정책을 강화하여 국어사용을 금지시키려는가 하면 우리말로 된 서적의 발행과 판매마저 금지시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을 폐간시키고, 당시 순문에 작품의 발표채널였던 '문장'과 '인문평론'도 자진폐간의 형식으로 없애버리고 만다. 그리고 '인문평론'은 '국민문학'으로 개제하여 이른바 황도문학, 황국신민화 정책을 고취시키는데 앞장섰다.

김남천 역시 그 왕성하던 작품활동이 격감되기 시작했다. 1941년에 몇 편의 소설과 평문이 발표되고 1942년 <등불>과 1943년 '국민문학'에 일문작품 <或る朝>을 발표하다가 해방을 맞이한다. 해방과 더불어 그는 '조선문학전설본부'를 설립하는 등 문학운동에 투신하다가 월북한 것이다.

결국 김남천의 생애를 간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 해 볼 수 있다.

어릴적에 태어나 고향에서 자란 소년기(1911~1924)는 시골의 아늑함 속에서 순탄한 전원생활을 해서 원만한 성격형성을 지녀왔다. 그러다가 집을 떠나서 평양고보에 재학하던 사춘기(1925~1929)에는 새로운 도회환경 속에서 사회주의에 심취하는 한편 우연히 만난 김진해와 뜨거운 사랑에 빠진다. 말하자면 로맨틱한 시절이요 자유스런 시절이었다 할까. 그런데 진해와의 결혼문제로 갈등을 빚고 동경에 건너가 유학하던

25) 이덕화, 앞의 책, p. 15.

청년기(1929~1935)는 프로문학의 열풍과 첫사랑(전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속에서 방황하고 옥살이마져 겪던 시련을 당해야 했다. 그런데 요행히 참한 규수인 박복실과의 재혼으로 열린 장년기(1936~1947)에는 술한 청년기의 시달림을 벗어나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30년대 후반 무렵은 생활의 안정을 누리며 대표작들로 치는 <소년행>과 <대하> 등 소설을 비롯해서 많은 평론을 발표하여 왕성한 작품 실적을 올린 전성기를 이룬 것이다.²⁶⁾

말할 나위도 없이 그의 말기는 1947년 월북 이후 또 다른 수난을 겪는 시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김남천의 생애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작가편력은 평양고보시절에서 출발하여 1930년 6월 ‘중앙일보’에 평론 <영화운동의 출발점 재음미>와 ‘조선지광’에 희곡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등단하여 1947년경 월북하기 전까지 주로 소설과 평론 두 장르에 걸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많은 양의 작품을 남겼던 것이다.²⁷⁾

더구나 1930년대 중반부터 발표한 그의 창작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문학론의 근거에 따라 쓰여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가 평론가로서 당당한 문단적 이슈를 나름대로 수렴·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그의 문학론은 ‘자기고발—모랄론—도덕론—풍속론—장편소설개조론—관찰문학론’²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다시 체험적 문학론(고발문학론—모랄론)과 관찰문학론(로망개조론—관찰론)²⁹⁾으로 크게

26) 이명재, 앞의 글, 앞의 책, p. 347.

27) 월북하기 전까지 발표한 소설은 장편, 중편, 단편을 포함해서 약 60편 정도이고, 수필을 포함한 평론이 약 170 여편, 단행본으로 발간된 작품이 7권으로 나타나 있다. 신상성은 1930년대에 발표한 김남천의 소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이고 있다. 신상성, 김남천 연구, 경운출판사, 1990. p. 50.

장 편(중편포함)			단 편		
발표연도	제 목	발 표 지	발표연도	제 목	발 표 지
1 1933년	나난구(중편)	조선일보(중단)	1930년	공장생산조합	조선지광
2 1938년	새기의 화문(중편)	여성(3~7호)	1931년	공장신문	조선일보
3 1939년	대하(장편)	인문평론사총서	1932년	공우회	한지광
4 1939년	바다로 간다(중편)	조선일보(5.2~6.15)	1933년	남편 외 2편	신여성등
5 1939년	사랑의 수족관(중편)	조선일보(9.1~10.3)	1934년	문예구락부	조선·중앙일보
6			1937년	남편 외 4편	조선문학 등
7			1938년	요지경 외 7편	조광 등
8			1939년	주말여행 외 9편	야담 등
	계	5(4편)	계	30편	

28) 김남천, 체험적인 것과 관찰적인 것, 인문평론, 1940. 5월호, p. 50.

29) 배광호, 1930년대 후반기 장편소설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1987. p. 11.

두 묶음하여 살펴 볼 수 있다.

그리고 1930년대에 걸쳐 그가 집중적으로 발표한 소설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생일전날>(1938)을 비롯하여 10여 편을 제외하면 대부분 도시소설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의 도시적 성격이란 도시라는 독소적 요소로 말미암아 인간의 원초적 삶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가령 가난·인신매매·싸움·출가 등 삶의 생태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마약·알콜중독 등 갖가지 병리적 현상이 드러나는 것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앞에서 겔판트가 분류한 세 가지 유형을 김남천소설에서 찾아본다면, 초상형소설과 생태학적 소설은 제시되고 있으나 총합형은 찾아볼 수 없다.

IV. 도시소설의 두 양상

그러면 1930년대 후반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발표한 김남천소설에서 도시소설의 면모를 두 가지 양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즉 이 무렵 그가 도시를 배경으로 삼은 작품은 하나같이 전통가족이 붕괴되어 가는 모습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에서 가장장 중심의 가족구조가 점차 도시산업화에 따른 일종의 핵가족화의 전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혼이나 혈연 또는 입양의 유대로 맺어지며 단일가구를 형성하는 집단” 혹은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집단”³⁰⁾을 가족이라 할 때, 이것이 분열·파편화된 모습은 이 무렵 도시를 토대로 한 모든 소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시소설은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만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전체사회의 모순과 변동을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뿐 아니라, 도시의 사회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파악하는냐 하는 보다 큰 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사회학 이론과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³¹⁾

30년대 후반의 도시소설이 주로 무력한 지식인과 도시빈민 등 외적으로 운동성이 소멸된 인물들을 그리고 있는 것은 이 시기의 사회운동의 침체와 연관되어 있다.

30)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1966. p. 15.

31) 그리고 도시사회학은 ①도시생태학적 이론 ②휴머니즘적 막시즘 이론 ③구조주의적 막시즘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나병철, 1930년대 후반기 도시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9. p. 8 참조.

그대신 도시소설은 기형적 도시화에 따른 갖가지 병리현상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운동성의 약화 및 그에 상응하는 소설 주인공의 무력화는 사회적 모순의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이중적 심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점에서 도시소설은 전체 사회의 위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위치에 있었다.³²⁾

김남천은 1935년 카프 해산계를 제출한 후 더욱 악화되는 외부정세로 말미암아 선택의 여지없이 정치주의에 대한 청산의 길을 강요 당하게 된다. 그 결과 정치운동과 예술운동의 이데올로기는 ‘은밀한 내면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고발문학론으로 전향하게 된다. 그것은 그가 이후부터 다양한 문학론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실험적으로 내놓은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무엇보다 1937년에서 39년에 이르는 3년간 김남천이 발표한 소설은 장편 3편을 포함해서 28편이나 된다. 이 가운데 도시 또는 준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도시적 삶을 다룬 것이 15편 가량 된다. 이것은 모두 체험적 문학론에 입각한 것으로서 고발문학론에 드는 것과 모랄론에 드는 것³³⁾으로 양분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고발문학론 계열에 해당하는 작품은 지식인 남녀의 도시적 삶이 알콜 또는 마약중독과 같은 병리적 요소를 제재로 삼거나, 입신출세·인신매매와 같은 도시의 비정성을 강하게 부각시킨 것이고, 후자의 모랄론 계열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소년 주인공이 기생 누이를 포함한 가족의 가난한 삶의 생태와 가부장제 가족주의가 붕괴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들이다.

1. 지식인 주인공 소설

김남천의 고발론은 ‘자기고발→고발의 정신→자기고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자비하고 잔인할 것을 강조하고, 자기를 주체적·비판적으로 재정립한 후 현실세계를 볼 것을 주장한 이론이다.³⁴⁾ 따라서 그는 자기고발로 ‘자기폭로’ 또는 ‘자기격파’를 통해 지금 이 땅에서 당면한 리얼리스트 작가들의 갈길을 설파했다.

32) 위의 글, pp. 9~10.

33) 김남천 자신은 〈쳐를 때리고〉, 〈춤추는 남편〉, 〈제퇴선〉을 자기고발문학, 〈남매〉, 〈소년행〉, 〈누나의 사건〉, 〈무자리〉, 〈철령까지〉를 모랄론, 그리고 〈미담〉, 〈가애자〉를 고발문학으로 분류했다. 김남천, 양도류의 도장—내 작품을 해부함. 조광, 1939. 7.

34) 배광호, 앞의 글, p. 14 참조.

적어도 필자는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변호의 문학이나 자조적 문학이나 자기 기만의 문학에서 리얼리즘을 역설하고 그것을 이 시대적 감각의 구상에서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하고 확신하였다. 고민, 회의, 불안 지식인의 유약성과 양심 이런 것이 창작적 기준에 의하여 살살이 부서지고 그것이 문학적 개념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창작 이론의 구체화의 길 그것이 만일 나라를 따라서 변하고 시대를 따라서 발전하여 정지할 줄을 모르는 방향이라면, 이땅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여 시대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다.³⁵⁾

이에 따라 그가 직접 쓴 작품이 〈춤추는 남편〉, 〈제퇴선〉 등 7, 8편이다. 이들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소시민적 지식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두 과거에 사회주의 운동으로 옥살이 경험을 했던 인물로서 이른바 후일담문학³⁶⁾ 유형에 드는 작품이다. 이들 작품은 도시적 삶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처를 때리고〉, 〈춤추는 남편〉에서 볼 수 있는 도시적 삶이다. 주인공 '남수' (〈처를 때리고〉) 나 '홍태' (〈춤추는 남편〉)는 모두 고등지식인으로서 왕년에 옥살이 경험을 했던 인물이다. 이들은 시골에 부모처자가 있는 몸이지만 자가를 뒷바라지 했던 여인과 동거를 하고 있다. 생활력을 잃어버렸거나,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모두 동거여인으로부터 얹혀 살아가는(寄生) 꼴이다.

〈처를 때리고〉는 사회주의자 남수가 출감한 뒤 아내 정숙의 멸시와 친구 허창훈 변호사와 준호로부터 농락 당하는 서글픈 심사를 다룬 작품이다. 남수가 정숙에게 손찌검을 하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든다.

정치담이나하구 다니면 사회주의가. 시국담이나 지껄이고 다니면 사회주의가. 백년이 하루같이 밥 한술 못 벌고 십여년 동안 몸을 바친 제 여편네나 때려야 사상간가. 세월이 좋아서 부는 바람에 우쭐대며 현수작이나 지껄이다가 감옥에 다녀온게 하늘 같아서 백년 가두 그걸루 행세꺼릴 삼어야 사회주의자든가.³⁷⁾

정숙의 이러한 태도에도 남수는 이튿날 아내를 포용하면서 화해의 분위기로 물고

35) 김남천, 고발의 정신과 작가 - 신창작이론의 구체화를 위하여, 조선일보, 1937. 6. 5.

36) 최재서, 현대소설의 주제, 문장, 1939. 7월호, p. 153.

37) 김남천, 〈처를 때리고〉, 조선문학, 1937. 6.

가려는데 느닷없이 준호의 방문을 받는다. 그로부터 출판사 동업을 포기하고 신문사에 취업하겠다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절규한다.

남수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속이 찌르르하고 물끓듯이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내 마누라를 농락한 놈이 이놈이다—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생겨나며 이놈이 나를 농락하고 말았구나—하는 분격된 마음이 끓어오른다.³⁸⁾

〈춤추는 남편〉은 본처와의 이혼을 요구하는 영실과 상급학교 진학문제로 고민하는 본처의 아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지식인의 삶을 다룬 것이다. 주인공 홍태는 역시 과거에 사회주의 운동으로 옥살이를 했던 전력을 지니고 있지만, 영실의 친정 아버지 소개로 어느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소시민으로서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허약한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는 이렇게 길을 걷는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미친 사람 모양으로 걸었다. 지금도 그렇게 걷고 있다.

그는 발을 멈춘다. 벌써 밤이 되었다. 그것은 양주를 파는 뼈의 앞이다. 그는 그리로 들어간다.

「징」

그렇게 그는 여급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가만히 테히블을 들어다 보고 있다. 축음기 소리가 귀에 간지럽다.

「또 한잔」

「또 한잔」

그는 성차지 않아서 부란디를 청했다. 냉수도 마시지 않고 그는 따르는 대로 자꾸만 들이킨다.³⁹⁾

홍태의 일몰에 의탁한 자포자기적 삶은 본처와 영실 사이의, 말하자면 구도덕과 신도덕이란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무능과 허약함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것은 부박한 도시적 삶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8) 김남천, 위의 작품.

39) 김남천, 〈춤추는 남편〉, 1937. 10월호.

둘째, 〈재퇴선〉과 〈요지경〉에서 볼 수 있는 도시적 삶이다. 이 두 작품은 아편중독이란 특이한 제재를 가지고 엮은 소설이다. 주인공은 똑 같이 박경호란 인물이 등장하는데, 〈재퇴선〉은 순안의원에 조수로 있는 박경호가 향란이란 기생 아편중독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야기고, 〈요지경〉은 출옥한 지 얼마되지 않아 술로 인해 위궤양이 덧쳐 진통제를 맞기 시작하면서 금단증상이 일어난 자신과 기생 운심이란 아편중독자와의 동병상련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이 본래 정상한 인간이 아니냐. 그와 경호자신과 대비해 보면 그를 박대하고 경멸할 아무런 자격도 없었다. 그는 위궤양도 위궤양이려니와 그 이상 마약중독자가 아니냐. (중략)

경호의 육체는 그러는 동안에도 점점 금단증상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벌써 그에게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육체의 피로움과 사고력을 잃은 텅빈 머리뿐만이 그의 전체였다. 코가 저리고 입안이 마르고 사지가 부들부들 떨린다. 그는 와이셔츠 바람으로 집을 뛰쳐 나왔다.⁴⁰⁾

순안의원의 의사 최형준(〈재퇴선〉)이나 삼각의원의 의사 김상규(〈요지경〉)의 사ibi 지식인의 모습과 기생 아편중독자 향란과 운심, 관념주의자로 전락한 외판원 동지 김학선이나 운동으로 함께 고생하다 뒤늦게 출옥한 윤한국, 그리고 소시민 지식인 박경호를 통해 식민지시대 도시의 가증스러운 삶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녹성당〉, 〈이리〉, 〈T일보사〉에 나타난 도시의 비정성·각박성·부박성 등을 드러내 보인 작품이다. 이 작품이 발표된 1939년의 경성이나 평양은 여러가지 도시병리적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때이다. 가령 〈녹성당〉의 성병, 〈이리〉의 인신매매, 〈T일보사〉의 출세욕을 제재로 삼고 있는 이들 소설은 앞에 제시한 것과 또 다른 성격의 도시적 삶이 부각되고 있다.

먼저 김남천의 자전적 소설이라 할 수 있는 〈녹성당〉은 옥살이를 마치고 아내 김진해와 한때 평양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그 시절을 액자식 구성으로 엮은 작품이다. 외화부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장길부사로 죽은 박성운이란 소설가가 수기형식으로 쓴 작품을 각색한 것이 내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40) 김남천, 〈요지경〉, 조광, 1938. 2월호.

평양 서문통거리 중북판 쪽에 자리잡고 있는 녹성당약국 —이 약국의 주인격인 박성운과 약제사인 아내 김경옥은 힘겹게 살아가는데, 성운의 친구인, 연극을 하며 무위도식하는 철민은 성병이 걸려 이 녹성당에 의지하여 약을 짓는다. 이로 인한 성운부부의 싸움을 다룬 작품이다.

〈이리〉는 어느 봄날 오후 ‘나’는 영화관에서 ‘페페 르 모코’를 감상하고 서울의 뒷골목을 거닐다가 신문기자인 친구 박군을 만나 명치정 작은 요리집 2층에 마주앉아 저녁을 들면서 박군이 서울의 카즈바를 구경시켜 준다며 이야기하는, 역시 액자식 구성의 소설이다.

박기자가 대화에서 들려주는 줄거리는 밀매음 소굴인 서울의 관동은 현저동, 행촌동과 마한가지로 슬럼지대인데, 이곳에 밤 열시가 넘어 전차에서 내려서 계집을 끌고 가는 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중절모를 쓰고 작달막한 다부진 체격의 권명보라는 인신매매꾼이다. 그리고 그에게 끌려가는 여인은 열 일곱 가량의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시골티 풍기는 강원도 농촌에서 돈에 팔려 온 언년이다. 이윽고 이들이 어느 어숙진 집에 다다르자 뜰 아랫방 들창을 두드린다. 방안에서는 사뭇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는 서상호일당과 만나 거래를 하는데, 권명보는 어느 때와 달리 이 아이만은 자기가 갖겠다고 한다.

권가 —그는 돈이면 그만인 사나이였다. 그러나 서가— 자기는 돈도 돈이려니와, 돈보다 못지않게 호색의 취미를 갖고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 방안에 앉아있는 세 사람, 그리고 혹시는 대청 반칸을 건너서 간반방에 쭈후니 나란히 하여 잠이 들었는지 꿈을 꾸는지 알 턱이 없는 여섯년의 계집년들까지도 뻔뻔히 알려져 있는 하나의 상식이 아니었는가.”⁴¹⁾

이로 인해 이들의 거래가 무산되자 권명보는 언년이를 끌고 골목을 뛰어 나오다 붙들리고, 그의 자백으로 서상호일당과 그집에 유괴되어 있던 여섯 명의 계집이 모두 끌려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 작품은 인생유전과 인신매매라는 도시의 비정성이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현대인들의 심리 밑바닥에 잠들어 있는 악에 대한 강력한 욕구, 말하자면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 횡행되고 있는 당시 현실사회의 어두운 면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에

41) 김남천, 〈이리〉, 조광, 1939. 6월호.

숨쉬고 있는 본성문제를 특정 영화를 감상하고 난 다음의 사람 경우를 들어 띄어 쓴 김광세는 이렇게 전개시키고 있다.⁴²⁾

〈T일보사〉는 겔판트가 분류한 도시소설의 유형 가운데 초상형에 들 것 같다. 평양 산간고을에서 단신으로 상경한 김광세는 서울 T일보사 판매부장으로 있는 중학교 동창 최승준을 찾아가 말단 판매부원이 된다. 이때부터 그는 입신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T일보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 이럴 때 김광세가 경영의 위기를 막아줌으로써 입사 이십일만에 편집국 지방국장으로 승진한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김광세는 가지고 온 만원을 증권에 투자하자 그것이 뜻밖에도 급등하여 거기서 생긴 이익금을 경영의 위기에 처한 T일보사에 투자함으로써 일약 부사장으로까지 오르게 된다.

이날 광세는 늦게까지 신문사에 있다가 시간이 되어서야 자동차를 타고 연회장으로 향하였다. 가는 도중에 명치정 '우메야'라는 텀뿌라집을 생각했으나, 그는 이내 머리를 털었다.

(아직도 나는 성공한 것이 아니다! 나는 겨우 T일보사를 정복하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메야에 가서 축배를 올릴 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차가 종로를 휘어돈다. 그러나 그때 안전지대 위에 섰는 이남순이를 그는 차안에서 발견하였다.

「차를 저리로 대시오!」

차가 멎은 뒤 광세는 얼굴을 차창으로 돌려서 여기자 이남순이를 보았다. 남순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먼구스러워 했으나 머리를 수그러 인사를 하였다.⁴³⁾

처음 T일보사에 입사할 때 이남순기자에 비하여 자신의 초라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 그는 부사장이로서 처신이 뒤바뀌어 은근히 자신을 뽐내고 있는 것이다. 현대문명의 상징이라 할 신문사를 배경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부박한 모습이 김광세란 인물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42) 이명재, 앞의 책, p. 294.

43) 김남천, 〈T일보사〉, 인문평론, 1939. 11월호.

2. 소년 주인공 소설

자기 고발론에 이어 모랄론에 연관된 작품이라고 김남천 스스로가 내세운 〈남매〉, 〈소년행〉, 〈누나의 사건〉, 〈무자리〉 등은 성인 중심의 지식인이 아니라 소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 소년이 소속된 가정은 상당부분 소설의 주요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소년의 가족구성원 — 부모, 기생누이, 어린 동생 등 — 간의 갈등과 분열이 소설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에서 봉건적 가부장제 가족주의가 어떻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가를 당대 빈민들의 도시적 삶을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남천 모랄론의 방향은 풍속과 세태를 단 의미에서 인정하고 내성적이라든가 심리적이라고 지칭되는 자신의 작품 경향을 다른 성격으로 유리시켜 양자의 융합을 통해 과학적 인식론으로 이끌어 갈 것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왜냐하면 ‘모랄론’의 입장은 과학적 개념이 갖는 합리적 핵심을 잃지 않고 과학의 기능이 달성한 진리를 일신상의 도덕으로 파악하여 그것을 풍속 가운데서 완전히 문학적으로 표상화하려는 곳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성적이나 심리적이거나 자기성찰이니 하는 것을 강력한 이론적 ‘모랄’로 파악 발전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세태풍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가지려는 문학의 기본적 성격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⁴⁴⁾

이렇게 그는 내성적·심리적인 것을 이론적 모랄로 발전시키면서 아울러 세태풍속으로 지향할 것을 바란 것이다. 이것은 결국 리얼리즘을 내세우면서도 내성·심리주의와 관념론으로 빠져드는, 고발문학론의 모순으로부터 전개된 문학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관념론적 성격만 더욱 짙게 만든 결과가 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김남천소설에 나타난 도시적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봉근’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남매〉, 〈소년행〉과 ‘운봉’이가 등장하는 〈무자리〉의 경우다. 〈남매〉는 봉근이의 외부 학습이와 이웃 차서방이 고기잡이를 나간 곳에 봉근이가 뒤쫓아가 많은 고기를 잡아 돌아온다. 그러나 잡은 고기를

44) 김남천, 조선문학의 성격—모랄의 확립, 동아일보, 1938. 6. 1.

모두 내다 팔고 집에서는 한 마라도 맛보지 못한다. 이로써 화가 난 봉근이와 누이 계향(봉희)과의 사이에 사소한 일로 다툼이 벌어지고 다시 어머니와 계향과의 싸움으로까지 확대된다. 어머니는 10년전 전남편 김일구와 사별하고 어린 남매를 데리고 지금의 땀쟁이 학섭에게 재가했던 것이다. 그 사이 학섭의 아이 관수를 낳고 어렵게 살아간다. 그러나 의부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된 봉희를 기생 계향으로 만들어 뒷돈을 챙기며 살아간다. 계향은 가난한 세무원 윤재수를 사랑하지만, 이날 어머니와 다투고 난 뒤 봉근이를 데리고 본바닥 기생 명월네 거릿채 두 방을 빌려 이사를 해버린다. 그리고 이날 계향이 평소 싫어하던 식료품 가게 젊은 주인과 동침을 한다. 이를 목격한 봉근이는 또 화가 치민 것이다.

봉근이는 모든 것이 더러워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 누이- 모두가 더럽고 구러 보였다. 세상에는 숭고하고 신성한 것은 도무지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⁴⁵⁾

〈남매〉의 무대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7년 세월이 흐른 뒤 서울을 무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소년행〉이다. 18세의 나이로 녹성당약방의 사환으로 있기까지 봉근이는 여관 사환, 양말공장 직공, 양복점 견습공 등을 거쳐 3년전 단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이제 저축도 하며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 반면 누이 봉희는 대조적으로 안주, 정주, 개천, 신막 등지를 유전하다가 몸쓸병(냉병)이 걸려서 서울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회주의 하다가 금광 부로커가 된 박병걸을 못잊어 한다. 그러니까 이 7년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건전하게 성장하는 봉근의 삶과 이와는 반대로 퇴행해 버린 계향과 가족들의 삶이 대비되는 한편, 고향에서의 가족공동체적 삶 자체가 붕괴되어 간 시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⁴⁶⁾

봉근이는 기생 연화와 함께 기거하고 있는 청진동으로 누이를 만나러 간다. 누이를 만나 지난 세월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다가 연화와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데 불췌 찾아온 박병걸을 만난다. 봉근이는 연화에게 야릇한 호감을 느끼고, 며칠 뒤 누이의 지갑과 연화에게 줄 콤팩트를 사들고 찾아가지만 병걸이가 봉근이를 놀려대자 연화에게 주었던 콤팩트를 빼앗아 뜰에 내던지고 밖으로 나와 약방으로 돌아온다.

45) 김남천, 〈남매〉, 조선문학, 1937. 3월호.

46) 김재남, 앞의 책, p. 115.

자전거 위에 올라타니 벌써 마음은 시원하였다. 마침 네거리의 교통신호는 황색이다. 그는 넘어질 듯이 자전거를 놓히고 바른쪽으로 길을 휘여잡곤 궁둥이를 안장에서 들고 아스팔트 위를 지치듯이 돌아간다. 뒤이어 찌르릉 하고 종이 울다 멎으면서 신호는 파란색으로 변하였으리라. 그는 바다라 볼수록 편편한 넓은 길을 앞으로 앞으로 달아나갔다. 막 피어나는 가로수의 나뭇가지가 뒤으로 뒤으로 밀려간다. 제비같은 자동차와 산돼지같은 사이드카가 그의 경쟁의 대상이었다.⁴⁷⁾

결말은 이렇게 끝나고 있다. 황색신호가 파란색 신호로 바뀌고 그의 앞에 펼쳐진 편편한 넓은 길은 새로운 의욕으로 가득차 있다.

〈무자리〉는 앞의 두 소설이 ‘봉근-계향’인데 이름만 ‘운봉-담홍’으로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구도는 변함없는 작품이다. 보통학교 졸업반인 14살의 운봉이는 중학교 입학에 희망한다. 가정형편으로는 도무지 염도 낼 수 없는 처지지만 서울에 있는 누이 담홍으로부터 학비보조가 있으리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아편중독인 아버지가 죽자 서울 누이에게 전보를 친다. 운봉이는 아버지가 죽은 슬픔보다 누이가 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때때 아래위 흰옷 차림을 한 담홍이가 들어선다. 삼우제를 지내고 난 어느날 밤 어머니와 담홍이가 대화하는 소리를 엿들은 운봉이는 누이가 임신 사개월이라는 것과 다시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영 집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낙담한 운봉이는 이튿날 아침 중학의 꿈을 포기하고 학구에게 찾아가 학구가 다니는 곳에 취직을 부탁한다는 줄거리다.

아버지와 어머니, 딸(누이), 아들이 서로 상대되는 세력을 이루면서 가족 구성원 서로간의 문제를 통해 당대 사회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아버지는 형식적으로는 가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힘을 상실해 있고, 단지 남은 권위를 가지고 가족을 억압하고 있다. 그래서 자식들은 가정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 한다. 여기에서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파탄되는데, 그것은 첫째로 그 아버지에게 원인이 있다.⁴⁸⁾

둘째, 소년 주인공 학구와 그 누이 수향(학회)이가 중심이 된 준도시적 삶을

47) 김남천, 〈소년행〉, 조광, 1937. 7월호.

48) 현길언, 한국소설의 분석적 이해, 문학과 비평, 1990. p. 215.

제시하고 있는 소설이다. 여기 해당하는 작품은 〈누나의 사건〉을 비롯하여 〈오월〉, 〈향민〉, 〈단오〉 등으로 동일한 소재를 다룬 연작형식의 소설이다.

〈누나의 사건〉은 수향이 좋아지내는 대서쟁이 임재호가 조합 계돈을 횡령한 죄로 경찰에 붙들려 가자 재호의 어머니가 달려와 어머니와 큰 싸움이 벌어진다. 이로 인해 가정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데 단오명절이 왔다. 어머니는 모처럼 이밥과 미역국을 끓이고 돼지고기를 마련하여 온가족이 둘러 앉아 먹는데 갑자기 수향이 누이가 부엌 섯문을 차고 나가 구역질을 한다. 단오 이튿날 수향이는 여전히 요릿집으로 불리워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향이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는다. 임재호가 단오 지내고 송국된다는 소식을 듣고 수향이는 더욱 침울해 진다. 어머니는 수향을 불러 앉히고, 임재호를 버리고 김씨집 소설이 되라고 타이른다. 그러나 수향이 거절하자, “이년, 어서 내일 아침 재호놈하구 함께 감옥소루 가라. 그놈하구 손을 맞잡구 감옥구덩이루 가라”⁴⁹⁾는 아버지의 노성이 터져 나온다.

〈오월〉은 학구와 그의 친구 광수와의 우정에 초점을 둔 소설이다. 〈누나의 사건〉에서 보여주었던 학구의 가정은 수향이 누이 문제로 늘 침울하다. 학구는 학교에서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 하지만 가난 때문에 빈번히 좌절에 빠진다. 부유한 집 아들인 광수는 이러한 학구를 도와주려고 애쓴다. 둘 사이의 우정은 오월의 자연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펼쳐지지만, 늘 현실의 어두운 그림자가 견히지 않는다.

〈향민〉은 수향이 공일날이라 일찍부터 화장을 하면서 손님 맛을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가 뛰어와 재호가 평양으로 도망갔다가 잡혀온다는 소식을 전한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수향이는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웃의 기생 채월이를 찾아가 낮부터 함께 소주를 마신다. 이때 손님이 수향이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학구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채월네집으로 가지만, 수향이는 혀꼬부라지는 소리로 오늘은 술을 먹어 못간다는 것이다. 이때 어머니 송씨가 다시 찾아오지만 수향이는 어머니에게도 마음에 맺힌 소리로 주정을 한다. 맥이 풀린 송씨는 어둠을 헤집고 집으로 오는데 멀리서 재호어머니의 지껄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처음에는 피할까 생각하다가 재호어머니와 마주치자 욕지거리를 퍼부으면서 큰 싸움판이 벌어진다. 싸움을 치루고 집으로 돌아온 송씨는 토방에 앉아 흐느껴 운다.

학구는 어머니 옆으로 갔다. 한참동안 그의 어깨와 목덜미와 꺾어짜는 볼편을 바라

49) 김남천, 〈누나의 사건〉, 청색지, 1938. 6월호.

보다가 가만히 손을 대어 흔들면서,

「그만두구 밥이나 먹자, 또 학순이랑 학원에도 온다.」

하다가 채 말을 못맞추고 들켜 목구멍으로 말을 삼킨다.

어머니는 두어번 다시 어깨를 들먹들먹 하다가 푸— 한숨을 내쉴는다.⁵⁰⁾

어머니는 처음 시집들 때 생각을 한다. 지금의 남편 관술의 아버지는 큰 객주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자, 관술이가 대를 이어 영업을 했지만, 이웃에 크게 설비를 한 새 여관이 두셋 들어서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무렵 관술은 또 위경련을 앓기 시작하면서 마약을 쓴 것이 중독증상으로 몰고 간 것이다. 그 뒤 집을 팔고 영업도 중지하자, 딸을 기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학구—수향’의 가족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타락한 삶의 모습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빚어진 병리적·생태적 삶의 한 본보기가 되는 셈이다.

〈단오〉는 내일이 단오라고 오전공부를 마치자 학구는 기다리고 있는 광수에게 강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림 때문에 담임선생을 찾아간다. 담임선생은 학구를 데리고 여교원에게 가 ‘거시기의 오래비’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모히(유사 마약)까지 한다는데 그 틈에서도 공부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니 기특하다고 여교원이 말하면서 학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그만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소리 안나게 느껴온다. 당황한 여교원이 물러가고 담임선생은 학구에게 커다란 목탄지를 주면서 이삼주 안에 그림을 그려 오라고 명령한다. 학구는 교문을 벗어나 혼자 걸으며 앞으로 훌륭한 미술가가 되겠다고 결심해 본다. 집으로 돌아온 학구는 돌덩이 같은 조밥을 한술 뜨고 광수가 기다리는 강가로 나오니 단오행사를 앞두고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다. 학구는 작년에 붙었던 박재상의 둘째아들과 씨름을 했는데 또 지고 만다. 광수를 만난 학구는 산으로 갔다가 저녁무렵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단오 명절이라고 음식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여기서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이 작품은 〈누나의 사건〉에서 임재호의 아이를 임신하고 수향이 구역질하는 장면과 거의 일치되고 있다.

50) 김남천, 〈항민〉, 조선문학, 1939. 6월호.

V. 맺는말

이로써 1930년대 김남천 도시소설을 등장인물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의 우리 소설은 실로 다양한 면모를 띠고 발전했는데, 이 가운데 경성이나 평양 뿐 아니라, 그 인근의 중소도시에서 자본주의가 이행되면서 그로 인한 독소적 요소가 비극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⁵¹⁾ 이것은 다분히 도시세대들의 도시적 감각이 다양하게 표출된 것을 의미하는데, 구인회 멤버가 그 영향권에 있었던 작가들과 동반 자작가들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김남천은 이 양자의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않는 작가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도시적 삶을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가 보여주고 있는 도시적 삶은 대도시 경성에서 사회주의에 실패하고 옥살이를 경험한 지식인들의 변질된 삶이 알콜 또는 마약으로 인한 중독증상, 폐병·성병 등의 병독성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다른 한편 임신출세, 인신매매 등을 재재료한 도시의 부박성·비정성을 직접 폭로한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달리 경성이나 평양 같은 대도시는 아니지만 읍사람들의 가난한 삶의 생태가 어린 소년의 눈을 통해 다양하게 포출되기도 한다. 이 경우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의 전통 가족구조인 가부장제가 자본주의 산업화에 의해 붕괴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부분 부모의 패덕성과 그 자녀들의 희생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모든 비극적 삶은 사실 도시라는 단순매개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더욱 복잡하게 내재해 있는 요인이 따로 있을 것이나, 주로 자본주의 사회가 이행되어 가는 모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삶의 병리성과 생태적 현상에 주목하여 살펴 보았다.

그러면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논급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하나는 김남천소설에 구사되고 있는 다양한 기법에 대한 천착과 다른 하나는 1940년을 넘어서면서 발표한 <경영>, <맥> 등의 도시적 삶의 성격이다. 전자의 경우 액자구

51) 이 경우 모더니즘의 종개념으로 설정한 심리소설과 도시소설의 작가들, 예컨대 이상, 최명익, 정인택, 그리고 '단충'과 작가들과 박태원, 채만식, 유진오, 이효석 등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결같이 도시적 삶의 비극성을 '불안'과 '소외'의 차원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 이강언, 1930년대 모더니즘소설연구, 영남대 학위논문, 1987. 참조.

성, 연작형식, 일기체, 기사체, 고백담, 뉴스리얼, 몽타주 등 다양한 기법이 보이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2부작 형식의 〈경영〉, 〈맥〉에서 아파트 공간, 화가들과의 교류, 호텔 로비와 양식을 드는 풍속, 그리고 외래어의 활용 등 전위적이며 첨예한 시대감각⁵²⁾은 현대인의 고절감을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김남천소설에서 도시소설의 본체를 파악하려면 이러한 면모까지 폭넓게 살펴봐야 할 것이나 후고를 약속하면서 미흡한 글을 맺는다.

참 고 문 헌

- 강대기, 현대도시론, 민음사, 1987.
 권영민, 월북문인연구, 문학사상사, 1989.
 김재남, 김남천문학론, 태학사, 1991.
 나병철, 1930년대 후반기도시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9.
 배광호, 1930년대 후반기장편소설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1987
 서준섭, 한국 모더니즘문학 연구, 일지사, 1988.
 신상성, 김남천연구, 상·하, 경운출판사, 1990.
 이강언, 1930년대 모더니즘소설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87.
 ———, 이효석의 도시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제20집,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1992.
 이덕화, 김남천 연구, 청하, 1991.
 이명재, 김남천—등불, 지학사, 1990.
 이우용, 해방직후 한국소설의 양상, 고려원, 1993.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전광용, 한국근대소설의 이해Ⅱ, 민음사, 1983
 전해자, 현대소설사 연구, 새문사, 1987.
 정영진, 통한의 실증문인, 문이당, 1989.
 조기준외, 일제하의 민족생활사, 민중서관, 1971.
 최재석, 한국가죽연구, 민중서관, 1966
 한용환, 소설학사전, 고려원, 1992.

52) 이명재, 앞의 책, 앞의 글, p.316 참조

현길언, 한국소설의 분석적 이해, 문학과 비평사, 1990.

Gelfant, B. H, The American City Novel, Univerity of Oklahoma press, 1970.

기 타, 1930년대의 신문·잡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해공론', '여성', '인문평론', '조광', '조선문학', '청색지' 등